

書評

이수미 지음,
『〈태평성시도〉연구 - 조선후기 이상도시의 시각화』
(진인진, 2024)

유재빈*



〈태평성시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는 성곽과 시장을 갖춘 도시, 즉 ‘성시(城市)’ 공간 속에 다양한 인물 풍속을 그린 8폭 병풍이다. 2002년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에는 과연 한국 그림일까, 의심을 받았을 정도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분명 조선 후기의 화풍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인물 군상은 조선 복식을 하고 있지도 않고, 한양이나 평양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다. 저자 이수미는 2000년 박물관 수장고에서 이 작품을 발견하면서 이처럼 이례적인 내용에 놀라움과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2002년 “풍속화전”을 통해 이 작품을 처음 공개하면서 ‘태평성시도’로 이름 붙이고 소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후 2004년에는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 병풍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기반하여 새로 쓴 저서이다. 저자는 그사이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2016)을 비롯

*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조교수

해 여러 특별전에서 이 작품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통찰을 바탕으로 박사논문 이후 20년간 축적된 연구를 이 책에 반영하였다.

이 책은 <태평성시도> 한 작품을 중심으로 횡으로 촘촘하게 분석하였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태평성시도>의 연원을 조선의 성시도(城市圖) 전통과 중국의 <청명상하도(淸明上河圖)>의 영향에서 찾아보았다. 이어서 작품의 도상을 분석하는데, 3장은 인물과 동물, 4장은 사물과 건축물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다. 5장에서는 회화사적 특징을 살피는데, 병풍이라는 매체, 원근법과 음영법이라는 화풍, 제작시기와 제작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 결과 1790년대 후반에서 19세기 초로 제작 시기를 비정하고, 이인문, 김득신을 중심으로 한 차비대령화원으로 제작자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종합하여 <태평성시도>의 제작 의도를 분석하였다. 어떠한 직접적인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왜 이 작품이 제작되었는지 찾아가는 이 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태평성시도>에 대해서는 처음 공개된 시점부터 줄곧 두 가지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그림은 과연 현실의 반영인가, 허구적 상상력인가.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현실은 조선인가, 청인가. 저자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각각 300개가 넘는 세부 도판과 참고문헌, 400개에 달하는 주석을 동원하였다. 인용의 범위도 미술사를 넘어 경제사, 건축사, 과학사, 복식사, 민속사, 음악사, 군사사 등의 분야사를 아우르고 있다. 그림 속에 각종 상행위 장면, 건설 장면, 놀이와 공연 장면, 군사 훈련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조선인이 경험한 청대의 문물이 무엇이었는데 알기 위해 연행록을 샅샅이 뒤지고, 조선 당시의 풍속을 알기 위해 『동국세시기』를 비롯한 각종 일기와 풍속지를 인용하였다. <태평성시도>가 참고했을 여러 <청명상하도> 이본과 『패문재경직도(佩文齋耕織圖)』 판화를 가져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각 분야의 연구사와 다양한 문헌과 시각자료를 통해 저자는 제작 당시의 ‘시대의 눈’을 가지고자 한 것이다.

저자가 보여준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어떤 경우는 조선의 풍속이, 어떤 경우는 청의 문물이 반영되어 있고, 때로는 현실 어디에도 없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축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북경의 화려한 건축물을 반영하지만, 세부를 들여다보면 좌식을 위주로 하는 조선의 생활방식이나 벽돌을 사용하지 않는 조선의 건축방식이 보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남녀 인물의 복식은 조선도 청도 아닌 명대 이전의 한인(漢人) 복식인데 이는 조선이 이상적으로 여긴 ‘중화(中華)’의 가치를 인물에 투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저자는 <태평성시도>가 “현실 사회에 대한 생생한 묘사, 중국에서 얻은 각종 첨단정보, 그리고 더 좋은 세상에 대한

염원까지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결론짓는다. 이처럼 <태평성시도>에 대한 깊은 연구는 단지 이 작품에 대한 미술사적 성취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미술사에서 시작한 연구가 인문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동안 역사적 논의에서 사실 고증을 위한 ‘시각자료’로 활용되던 미술 작품이 당시의 기대와 염원을 반영하는 창의적인 매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되새겨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를 담아본다. 이 책은 <태평성시도>의 연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 그림이 후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아마도 이후 <태평성시도>와 유사한 작품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태평성시도>는 이후 19세기 왕실에서 유행한 회화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요지연도’, ‘곽분양행략도’, ‘한궁도’, ‘왕회도’ 등의 병풍은 <태평성시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사와 회화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조선적인 변용을 이루었다. 중화풍의 화려한 건물과 복식을 보이는 점이나 여성과 아동의 수가 많다는 점도 닮아있다. 그러나 <태평성시도>가 저자의 언급처럼 “현실 가능한 이상세계”를 제시하였다면, 이들 고사도 병풍들은 ‘환상적 이상세계’를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취향의 변화를 주도했던 왕실 구성원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19세기의 사회 문화적 발전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자의 지속되는 연구 속에서 이런 의문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